

## 윤석열 정권 퇴진 7월 총파업 투쟁 본격 돌입

5일 전국 14곳 총파업 결의대회 ... “윤석열 퇴진 촛불항쟁 촉발 도화선 될 것”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연맹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 7월 총파업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7월 5일 전국 열네 곳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전국 총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7월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등 전국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열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충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등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울본부는 7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승리 서울 결의대회를 벌인 뒤, 일본 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결의대회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으고, 퇴진 요구를 부각하는 자리로 기획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윤석열 살인 독재 정권 행동대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는 이곳에 모였다. 이곳은 윤석열 정권에 죽임당한 양희동 열사 노제를 치른 곳이기도 하다”라며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민주노조는 초토화, 노동자 삶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한국 사회는 독재시대로 돌아갔다”라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철 지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 안위를 위해 전쟁 위기를 고조하고 있다”라고 악행을 열거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전개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주력 산별노조로서 함께 한다”라며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이 전체 민중의 공분을 모아 윤석열 퇴진 촛불항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투쟁 의지를 북돋웠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윤석열 독재정권 퇴진,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법원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



대차 자본의 악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자, 당진경찰서장과 50여 명의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했다”라고 재벌의 용병을 자처한 경찰 추태를 고발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경찰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면서 “헌법조차 무시하고,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윤희근 청장을 파면해야 한다. 폭력 경찰을 배후 조종하는 윤석열 독재정권 반드시 몰아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공공요금 인상 반대 ▲공공성 국가책임 강화 ▲굴종 외교 규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을 거쳐 일본 대사관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벌였다.

결에도 불구하고, 부제소 동의서와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현대자동차·현대제철 자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지난 5월 4일 정의선 회장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방문했을 때 지회 간부 여덟 명이 현

대차 자본의 악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자, 당진경찰서장과 50여 명의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했다”라고 재벌의 용병을 자처한 경찰 추태를 고발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경찰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면서 “헌법조차 무시하고,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윤희근 청장을 파면해야 한다. 폭력 경찰을 배후 조종하는 윤석열 독재정권 반드시 몰아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공공요금 인상 반대 ▲공공성 국가책임 강화 ▲굴종 외교 규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을 거쳐 일본 대사관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벌였다.

결에도 불구하고, 부제소 동의서와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현대자동차·현대제철 자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